

# 가즈프롬, 아시아 시장 수출 확대

## 태평양 연안 파이프라인 신설 ... EU 반독점 조사에 따른 대응책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가즈프롬(Gazprom)이 아시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베리아와 태평양 해안을 연결하는 신규 파이프라인 및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알렉세이 밀레르 가즈프롬 사장은 10월2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가즈프롬이 주도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산업의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보고했다.

밀레르 사장은 러시아 동시베리아 북서쪽에 있는 야쿠티아 지역의 가스 개발 전망에 대해 보고하면서 “약 1조2000m<sup>3</sup>(큐빅미터)의 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지역과 러시아의 태평양 해안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3200km의 파이프라인을 2017년까지 건설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액화천연가스(LNG) 공장도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즈프롬은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137억달러, 파이프라인 건설에 244억달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파이프라인 건설은 유럽에 집중됐던 러시아산 가스 수출을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가즈프롬은 시베리아의 또 다른 가스 매장 지역인 코빅타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파이프라인도 건설할 계획이다.

밀레르 사장은 “빠른 시일 안에 유럽의 가스 공장들과 필적하거나 능가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 수출 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가스 수입의 5분의2 이상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으나 EU가 9월 가즈프롬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러시아의 유럽수출 전략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또 북아프리카 지역의 LNG, 미국산 셰일가스(Shale Gas) 출현으로 가스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등 국제 가스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면서 러시아가 아시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10/30>